

메시지 5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그리스도를 삶

성경: 빌 1:19-21상, 3:8-14, 엡 3:1, 4:1, 11-12, 16, 6:18, 20, 롬 8:2, 29

- I.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순수한 산출물이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그분의 부활 생명을 가진 것만이 그리스도의 짝과 배필인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 — 창 2:22-23, 엡 5:28-30.
- A.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머리의 몸도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 그리스도’,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다 — 골 1:18, 고전 12:12, 골 3:10-11.
  - B.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며,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질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몸의 건축을 위해 필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 — 빌 1:19-21상, 3:8-14.
  - C. 그리스도의 순수한 요소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이 이상에 의해 배제된다. 이 이상은 우리의 타고난 사람에 속한 그 무엇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비시킨다’ — 빌 3:3.
- II.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힌 사람’, ‘주님 안에 갇힌 사람’, ‘죄사슬에 묶인 대사’로서 우리의 영 안에 갇히는 것이다 — 엡 3:1, 4:1, 6:20, 고후 5:20, 비교 5:4, 9, 14, 16.
- A. 그리스도 안에 갇힐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계시를 받아 무한한 차원을 지니신 그분을,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새사람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만물을 머리이신 자신 아래 통일하시는 그리스도, 은사를 만드시고 은사를 주시는 그리스도, 거처를 정하시는 그리스도로 체험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된다 — 엡 3:18, 5:25-27, 2:15-16, 1:20-23, 4:7-8, 11-12, 3:17상.
  - B.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자유가 없고, 더 이상 자신의 편리에 따라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없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손 아래에서, 또 하나님의 그 손에 따라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할지를 결정한다 — 겔 1:1-3, 요 7:6, 8.
  - C.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 안에 있는 그분의 포로가 되어,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모든 것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공급하는 사역의 일 안에서 그분의 승리를 경축하는 것이다 — 고후 2:13-17.
- III.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실재가 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비결은 생명의 영의 법을 정의하고 묘사하고 설명하고 제시해 주는 로마서 8장에 있다 — 롬 8:2.
- A.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삼일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영 안에 하나의 법, 곧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동적인 원리와 능력으로 설치되었는지를 묘사해 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심지어 가장 위대한 회복 중의 하나이다 — 롬 8:2-3, 11, 34, 16.
  - B. 우리는 설치되시고 자동적이신 하나님, 곧 삼일 하나님의 ‘전류’이신 내주하시는 영의 자연스럽게

자동적인 능력의 ‘스위치를 켜므로써’, 설치되고 작용하는 생명의 영의 법에 협력해야 한다. 이 법의 ‘스위치를 켜는 것’은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주님을 계속 접촉하고, 그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며, 습관처럼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주입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다 — 엡 6:18.

1. 생명의 영의 법과 우리의 영의 연합인 연합된 영 안에서 행동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행동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사는 것이다 — 빌 2:13.
2.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운행하심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의 모든 속 부분 안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가지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분배를 받게 된다 — 히 8:10.
3.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영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 엡 6:18.
  - a. 우리는 “주님, 저를 통해 사소서.”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살아 있는 방식으로, 호흡처럼 해야 한다 — 살전 5:17, 엡 6:18, 영한 동변 찬송가 403장.
  - b. 에베소서 6:18의 계시를 따라, 우리는 몸의 생활의 실재를 갖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경계하며 완전히 깨어 있어서, 잠들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과 존재를 거슬러 싸워야 한다 — 엡 5:14, 6:17하-18, 골 4:2.
  - c. 기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우리의 몸과 정신을 압도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 마 26:41, 엡 6:18.
  - d.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 즉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대화함으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쉬지 않고 들이마시는 습관을 세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 애 3:55-56, 시 102편 제목, 영한 동변 찬송가 255장.
4. 우리는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 — 엡 5:18-20, 골 3:16-17.
5. 우리는 비어 있고 열린 그릇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 — 마 5:3, 눅 1:53, 왕하 4:1-6.
  - a. 바울의 열네 서신서는 ‘열린 그릇’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 롬 9:21, 23, 고후 4:7.
  - b. 우리는 주님을 극도로 사랑함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철저히, 절대적으로 열어 드려야 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몸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 고전 1:9, 2:9, 비교 16:22.
- C.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신성한 역량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살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 겔 36:27, 롬 8:2, 29, 엡 1:22-23, 3:19-21.
- D.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신성한 역량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온갖 종류의 기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조성되며, 그 결과 온몸이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 엡 4:11-12, 16.